장성 불태산에 '역사·문화 테마길' 조성

견훤 탄생 설화 장군굴 일대에 세가지 주제 길…내달말 착공 주민참여형 관광 사업으로 추진

스토리텔링 소재가 된 탄생 설화는 신라 말 마을 처녀와 장군굴에 사는 거대한 거미 사이에서 태어 난 사내아기에서 시작된다. 설화에서 사람들은 이 아이를 거미의 정기를 받은 '거무(거미) 화신'이 라 불렀다. 아이는 성장해 신라의 무관이 됐고, 그 가 훗날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라는 내용이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의 탄생 설화를 품은 장성군 진원면 불태산 장군굴 일대에 이야기가 있는 '역 사·문화 테마길'이 조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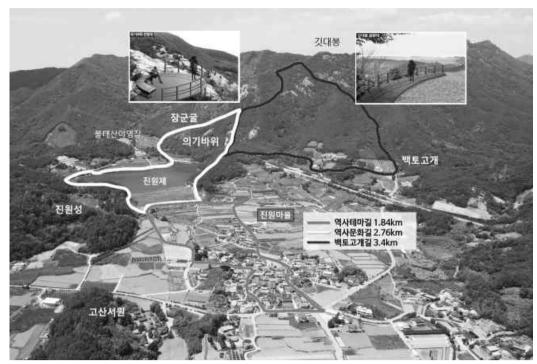
장성군에 따르면 진원면 일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테마길 조성사업을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6월말 착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주민 참여형 관광자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테마길은 역사테마길과 역사문화길, 백토고갯 길 등 세가지 주제로 각각 조성한다.

'역사테마길'은 마을 주위를 가볍게 둘러볼 수 있는 산책 코스다. 진원마을은 고려시대에 '진원현'으로 불렸던 곳으로, 그 역사가 자못 깊다. 마을 인근에는 조선 후기 학자 '노사 기정진' 선생을 기리는 고산서원이 있다. 여유 있게 걸으면 20~30분 정도 소요된다.

'역사문화길'은 진원마을의 재미있는 역사와 전



장성 불태산 역사·문화 테마길 조성사업 예정지.

설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코스로 꾸며진다. 고려

초기에 축성된 진원성과 견훤의 탄생설화 무대인

치하고, 불태산 중간에 쉼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완공은 오는 2022년 예정이다.

〈장성군 제공〉

장군굴, 백제 시대 슬픈 사랑 이야기가 전해 내려 유두석 장성군수는 "불태산 역사·문화 테마길 오는 의기바위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조성사업을 통해 마을이 지닌 소중한 문화적 가치 '백토고갯길'은 해발 600m 높이의 깃대봉까지 를 재발견해 관광자원화 할 것"이라면서 "장성 남오를 수 있는 등산로다. 중반 지점까지 완만한 산 부권역 관광 활성화를 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세를 지니고 있어 부담 없이 산행할 수 있다.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겨울철 위기가구 지원 우수 지자체

보건복지부 평가 장관 표창

함평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겨울철 복지 위기가 구 지원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 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운영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 지원기간에 뛰어난 성과를 보인 전국 우수지자체 23개시군구를 선정・발표했다.

함평군은 집중 발굴 기간에 416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해 긴급지원 및 공적 급여,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대비 268명(181%)이 증가한 수치다.

함평군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9개 읍·면의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97명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410명 등 인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취약계층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해 전남도 자체 사 업인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를 구성해 운영한 것

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민간자원 발굴·연계 106건, '희망2021 나눔 캠페인' 5억여원 성금 모금 등의 성과도 거뒀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성과는 민·관이 함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 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상황이 심화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담양군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담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는 임대료 인하기간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감면율은 감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소 10% 이상일 경우부터 적용되며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경우 올해 7월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올해 6월 이후 임대료 감면과 감면약정을 한

착한임대인은 재산세를 납부한 이후 환급이 가능 arr

재산세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의 경우 올해 12월 10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증빙 서류와 함께 군청 세 무회계과로 제출하면 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임대료를 낮춰 상생에 힘써주시는 착한임대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임대인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기자 nyc@

"새콤달콤 강진 체리 맛보세요"

장성군은 테마길 곳곳에 이정표와 안내판을 설

14농가 5ha 친환경 재배 여름철 인기 과일 수확 시작

초여름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진의 체 리 수확이 시작됐다.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체리는 다른 과일보다 재배기간이 짧아 개화 후 50~70일 정도면 수확하기 때문에 농약을 살포하지 않는 친환경 과일로 인기가 높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표 과일로 과육이 두꺼운 단맛 위주의 수입산 체리에 비해 새콤한 맛이 더해 져 신선함과 함께 찰진 식감도 장점으로 꼽힌다.

강진군은 최근 농산물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수년 전부터 유망과수 사업을 추진했다.

강진 체리는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가 시작돼 현재 14농가, 5ha로 면적이 확대됐다.

올해는 기온 상승에 힘입어 작년보다 10일 정도 수확시기가 앞당겨졌다. 작황도 좋아 농업인의 손길이 분주하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기술지도를 통해 지역특화 작목으로 꾸준히 육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 체리 재배농민 부부가 31일 빨갛게 익은 체리를 수확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강진군

화순군 금호아파트 후문 도로 한쪽 주차제

장일오토랜드~만연공영주차장

화순군이 6월부터 금호아파트 후문(장일오토랜 드~만연공영주차장 앞)쪽 도로에 한쪽 주차제를 시해하다

한쪽 주차제는 무분별한 양쪽 주차로 인한 차량 정체와 보행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양쪽에 각 각 다른 단속유예 시간을 적용하고 도로 한쪽으로 만 주차를 유도하는 제도다. 시행 구간은 장일오토 랜드에서 만연공영주차장 앞까지 200m 구간이다.

한쪽 주차제가 시행되면 금호아파트와 접한 도로는 60분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맞은편 상

가 쪽 도로는 주차가 금지되며 5분간만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

운영 시간은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평일점심시간(11:40~13:20)과 주말, 공휴일에는 양쪽주차를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은 홍보와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해당 구간에서 한쪽 주차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1일부터는 한쪽 주차제가 시행되는 도로에서 주·정차 시간을 위반하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군 '찾아가는 귀농어촌 현장상담' 시행

장흥군(군수 정종순)이 도시민지원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귀농어촌 현장상담'을 실시한다.

지난 31일 장흥군에 따르면 전입 초기 귀농어촌 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방문 상담의 어려움 때문 에 전화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 전달 및 상호 이해의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 정책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약제 현장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담 신청 대상은 장흥군으로 전입한 5년 이내

귀농어촌인이며, 도시민지원센터나 읍면 행정복 지센터에 전화나 서면으로 예약하면 된다.

군은 예약 신청을 접수하면 우선순위를 고려해 일정을 협의하고 현장상담팀을 구성하여 애로사 항 해결을 위한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통해 상 담의 신뢰성을 고취하고, 상담 결과를 활용하여 귀 농어촌 성공요인 및 저해 요인을 분석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